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5 | 제147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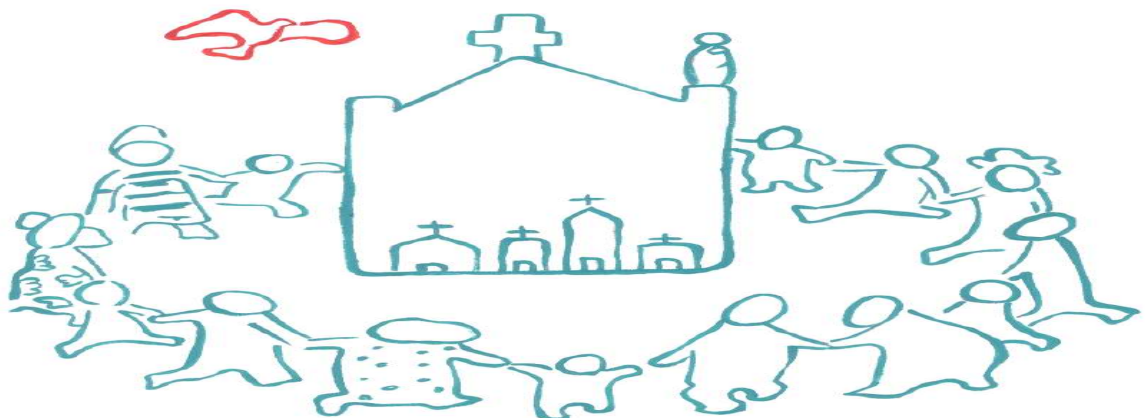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7.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부활 제6주일 (5월 9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9-17)



사랑

그림 정미연 소화대레사 | 화가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어 모든 이에게 별처럼 쏟아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될 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용기와 힘이 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배려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쏟아지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온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새겨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시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우리는 이웃을 내 몸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 줄 수 있고, 그 희생의 나눔을 통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기꺼이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인간은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과 인간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랑으로 느끼는 행복자체' 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라면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하느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곧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애매모호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알고 이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 나갑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5월 16일)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마르 16,15-20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승천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주님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지켜본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알았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들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에페 4,10)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15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마르 16,20)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4개의 복음서를 그냥 이웃에게 읽으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쁨을 살아내야 하고, 기쁨 만큼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삶,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삶 안에서 체험하고, 체험한 바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화이고 선교입니다.

이제는 남극과 북극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찾아 복음의 씨를 뿌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아직도 선교의 사명은 남아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들,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만 가는 이들, 이젠 더 이상 하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하느님을 증거하고 알리며, 살아있는 신앙을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 대방동 본당

- 대방동본당 남성구역분과장 박병오 요셉 -

찬미 예수님!

창원 대암삼 기슭에 1999년 12월 설립된 대방동 본당은, 갓 스물을 넘긴 젊고 활기찬 본당으로 창원 끝자락의 아파트, 주택의 신자들로 11구역 36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신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방동 본당의 소공동체 모임은 남성구역분과와 여성구역분과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별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반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가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식당에 따로 마련된 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로 말씀 나누기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4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저녁 8시에 시작하여 모임 후 간단한 다과 자리를 마련하여, 본당 행사와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구역 내 소식을 주고 받으며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도울 방법을 활발하게 논의하여 본당 사회복지분과와 연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셋째주 주일 아침 7시에 모여서, 아파트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 정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공동체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본당 소식을 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소공동체를 실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방동 본당 전 교우들이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로 고통 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믿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활성화의 원천인 말씀

소공동체 활성화의 원천인 말씀

소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첫 번째 길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맛들임으로써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주님의 말씀, 11항)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피동적 신앙에서 스스로 새롭게 거듭나려는 '능동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 있는 신앙은 자신 안에 갇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곧,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복음의 기쁨, 1항)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한층 높은 차원에서 더욱 강렬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복음의 기쁨, 10항) 이 '말씀을 만나고 나누며 살아가는 힘으로' 소공동체는 스스로 성장하며 본당과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우리 시대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경청과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 특히 복음이 잊히고 세속주의의 확산으로 복음에 무관심해진 나라들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 122항)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